“ 기로에 선 석유화학 ”

특집: 한국 화학산업 전망 II

□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대책

□ 해외의 시각

□ 해외 석유화학산업 동향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1990년 115만500톤에 불과했던 에틸렌 생산량이 1991년 250만톤을 넘어섰고, 올해에는 320만톤에 달해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합성수지 부문에서는 공급과잉 물량이 내수의 40~50%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공급과잉은 3~4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격폭락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변화는 국내적 요인에 머문 것이 아니며, 세계적으로도 미국·유럽지역 기업들도 생산량 감축 및 고용원 대량 감원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삼성·현대 두 거대 재벌의 참여, 공급과잉의 심각성에 더해, 80년대 후반 연평균 15.4%의 수요증가율이 90년대에 들어 8~9% 수준에 머문 것으로 예상돼, 95년 이후까지는 이같은 현상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또, 갑작스런 대규모 신·증설에 따라 기술의 축적이 전혀없는 상태라는 점과 함께 마케팅 능력 및 경험이 크게 부족, 3~4개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 기업 독자적으로는 회사를 끌고 나갈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내시장을 놓고 업체간 시장쟁탈전이 첨예화, 가격폭락은 물론 시장질서 마저도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남·북교류 활성화 등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는 있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다.

그러나 우리 업체들이 지금까지 중국과의 직교역보다는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에 매달려 왔다는 점에서 보면, 관세인하 효과가 당장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북 수출도 시기 및 물량면에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연구개발의 소극화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늦어지거나 어렵고 기업별 협력체제의 어려움, 거대 재벌간의 파워게임 등 난제가 수두룩, 앞날을 어둡게 하고있다.

<화학저널 1992/1/15>